



Ontario

News Release  
Communiqué

2007  
ONTARIO  
BUDGET

BUDGET DE  
L'ONTARIO  
2007

Investing in People  
Expanding Opportunity  
Ontario's New Economic Strength

Investir dans les gens  
Accroître les possibilités  
Nouveau dynamisme économique de l'Ontario

즉시 보도  
2007년 3월 22일

## 맥귄티 정부의 2007 년도 예산 - 새로운 경제력의 시대를 맞아 기회 확대에 중점

아동 및 가정 지원에 21 억 달러 투입, 균형예산 회복

퀸즈파크 - 맥귄티 정부의 네 번째 예산은 아동에 대한 투자, 교육, 보건의료 및 기간시설의 지속적 강화, 균형예산 확립 등을 통해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한 기회를 확대한다.

그렉 소바라 온타리오 주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은 어린이들과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가족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기회의 확대는 새로운 경제력을 창출하며, 풍요롭고 조화로운 복지사회의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2007 년도 예산안에는 아동 및 가정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신설되는 온타리오 아동급여(Ontario Child Benefit - OCB) 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처음 5 년간 21 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이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면 연간 약 130 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수혜 아동의 부모는 육아지원 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복지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OCB 는 모든 저소득 가구의 18 세 미만 아동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이 아동 및 가정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및 정책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OCB 는 그 일부이다.

-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 및 온타리오 장애지원제도(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급여 2% 인상
- 2010 년 시간당 최저임금 10.25 달러로 인상
- 2007-08 년도에 육아지원금 2 천 5 백만 달러 추가 투입, 2008-09 년부터 연간 5 천만 달러로 확대 및 지속적 지원
- 신규 서민주택 공급 사업
- 연금수령자의 퇴직소득 사용 제한 완화, 연금소득 분할 허용
- 약 155,000 명의 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각종 혜택 확대

2003 년 10 월 이후 온타리오 주에 32 만 7 천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다음 3 년 동안 27 만 개가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다.

2007 년도 예산안에는 세금 인상 계획이 전혀 없으며, 2003-04 년도에 떠안은 55 억 달러의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연속 2 년차 균형예산을 내다보고 있다.

“2006-07 년도에는 세입 증가 및 채무비용 이자 절감이 정부의 예산을 초과했다. 우리는 균형예산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만일 2007-08 년도에 예비비가 불필요할 경우 향후 5 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소바라 장관은 밝혔다.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기타 주요 안건으로는 온타리오 주 재산세 체계의 공정성 강화와 기업교육세율 인하가 있다.

소바라 장관은 “주택소유자들과 지방자치체들이 공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 사정 체계를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사업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2007년도 예산은 또한 가정 에너지 점검 리베이트, 온타리오 삼림재단(Trees Ontario Foundation) 재정지원(온타리오 주에 나무를 백만 그루 이상 심을 수 있는 금액)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신규 정책사업에 약 1억 2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 정부는 보다 푸른 녹색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올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도 예산은 보건의료, 교육, 기간시설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계속하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온타리오 주 내 간호학과 신규 졸업생에게 풀타임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한 추가 지출 4천 3백만 달러(총액 9천 9백만 달러), 장기요양원에 간호사를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추가 지출 1천 4백만 달러, 소아과 수술 및 기타 의료에 대한 대기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추가 지출 1억 3천 5백만 달러 등, 2007-08년도에 보건 부문에 379억달러 투입.
- 초등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성적 향상 및 고등학교 졸업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7-08년도에 각급 교육청에 보조금 183억 달러 지원 - 전년도 대비 약 8억 달러 증액, 2003-04년도 대비 17% 이상 증액.
- 2007-08년도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에 기초 운영 보조금 40억 달러 지원. 강의실 공간 확장, 신입생 정원 증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고등교육기관에 3억 9천만 달러 추가 투입.
- 대중교통, 간선도로, 종합병원, 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지방 기간시설 등에 대한 2007-08년도 기간시설 투자 59억 달러.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한 맥킨티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고, 대학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체계의 능률과 효율이 향상되었다. 우리는 주 전역에 새로운 기간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주의 가장 취약한 주민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사업 개선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보다 푸른 온타리오를 위한 정책사업을 출범시키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균형예산과 흑자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소바라 장관은 덧붙였다.

연락처:

Michael Arbour  
Minister's Office  
416-325-4138

Scott Blodgett  
Ministry of Finance  
416-325-0324

Korean